

## 중증근무력증의 수술적 치료

연세의대 흉부외과학교실  
강정수·정경영·김길동

연세대학교 의료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1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중증근무력증으로 흉선제거술을 시행받은 8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래추적을 통해 그 경과를 조사하였다.

대상환자군의 연령분포는 13세부터 66세로 평균 37.7세였으며 여자가 59명으로 남자보다 2.57배 많았다. 내원당시의 임상증상은 1군이 15명 (18.3%), 2군 경증이 56명 (68.3%), 2군 중등증이 7명 (8.5%), 2군 중증이 4명 (4.9%)였으며 갑상선(기능항진 등의)질환이 동반된 경우는 10명 (12.2%)이었다. 발병연령은 8~66세로 평균 34.3세였다. 술 후 사망율은 30일 이내의 조기사망이 1례 (1.2%), 만기사망이 3례 (3.7%)였으며 4명 (4.9%)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. 술 후 중환자실 회복기간은 1일에서 29일로 평균 4.9일 이었고 호흡기 거치 기간도 당일 제거에서부터 22일까지 평균 2.9일이었으며 12명 (14.6%)에서는 호흡곤란, 근무력발작 등으로 기관내 재삽관을 시행하였다. 병리조직 검사상으로는 흉선비후가 35명 (42.7%), 흉선종이 24명 (29.3%), 정상인 19명 (23.2%), 흉선암이 4명 (4.9%)였다. 외래 관찰기간은 4개월에서 140개월로 평균 56.4개월이었으며 메스티논 투약량은 술 전에는 2~8정으로 평균 7.5정에서 술 후 0~13정, 평균 4.9정으로 감소하였다. 마지막 추적조사에서의 메스티논 투약량은 0~12정으로 평균 2.3정이었으며 투약량이 술 전에 비해 감소된 경우 27명 (36.0%), 약을 먹지 않는 경우 37명 (49.3%), 투약량이 같은 경우 6명 (8.0%)이었으며 증가한 경우도 5명 (6.7%)이 있었다. 술 전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경우는 14명 (17.1%)에서 술 후에는 31명 (37.8%)로 스테로이드 투여 환자수는 증가하였다가 마지막 추적조사에서의 스테로이드 투여 환자수는 18명 (22.0%)로 감소하였다.

조기사망 1례를 제외한 81명중 추적이 가능하였던 75명 중 완전관해가 온 경우는 28명 (37.3%)이었고 약물투여시 관해의 경우는 16명 (21.3%)이었다. 5명 (6.7%)에서 재발하였는데 그 시기는 술 후 4개월에서 91개월로 평균 31.9개월이었다. 술 후 증상은 관해가 온 44명 (58.7%)에서는 무증상,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28명 (3%), 증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 2명 (2.6%)이었으며 악화된 경우도 1명 (1.3%)에서 발생하였다.

면역억제제의 도입, 집중치료의 발전 및 수술 등으로 최근에 들어서 중증근무력증의 치료성적에 있어서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다. 이중 중증근무력증의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치료성공율을 보이며 여러가지의 수술 전 임상인자들 및 조직병리 결과들이 치료성적을 좌우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